

##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8.06.25.



# 1 기후기술 동향

##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과제 No. 및 담당자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FCCC 사무총장, 석유생산자에게 신속하고 야심찬 에너지 전환을 촉구</li> <li>- UNFCCC 사무총장 Patricia Espinosa는 UN CLIMATE SPEECH(2018.6.20)에서 저탄소 미래를 가능하게 하고 최악의 기후 변화로 인한 기쁨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 생산국들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전적이지만 필요한 전환을 할 것을 요청</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6/20, UNFCCC)</a></p>	김현민
GCF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 '17년 개도국 배출감축 및 기후위험감소 프로젝트에 총 352억 달러 지원</li> <li>- MDB들의 기후자금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352억 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li> <li>- 세계 6대 다자개발은행들이 기후 재정에 관한 발간한 공동 보고서(2017 Joint Report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limate Finance)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총 기후재원의 79%인 279억 달러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 완화 프로젝트에 사용</li> <li>- 주요 수혜지역은 남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세 곳이었고, 집행된 자금 중 80%가 융자 형태로 지원</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6/21, 환경일보)</a></p>	김현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O, 개도국 10개국 기후적응 지원</li> <li>- FAO는 녹색기후기금의 '준비 프로그램(Readiness Program)'으로 승인돼 7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음.</li> <li>- 프로젝트는 부르키나파소, 적도기니, 구야나,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마케도니아, 세인트키츠네</li> </ul>	김현민

		<p>비스을 대상으로 하며, 황폐화된 땅과 숲의 복원, 물 부족 해결, 저탄소 지속가능 축산부문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재해 감소 등을 다룸</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6/18, 환경일보)</a></p>	
CTCN	본부	<p>○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발간</p> <p>-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에서 전력 부문의 혁명이 재생가능 에너지 미래로의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전환점이 필요한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는 두 가지 현실을 지적</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CTCN)</a></p>	김현민
		<p>○ Asia Pacific Climate Week 2018 싱가포르에서 7.10-13 개최</p> <p>-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후 변화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변화를 주도"</p> <p>- 등록:<a href="https://nfpartnership.org/asia-pacific-climate-week/">https://nfpartnership.org/asia-pacific-climate-week/</a></p> <p style="text-align: right;"><a href="#">(CTCN)</a></p>	김현민

##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과제 No. 및 담당자
국외	일반	<p>○ IPCC, '1.5°C 특별보고서' 최종안 마련</p> <p>- 본 보고서는 '18.10.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48차 UN IPCC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p> <p>- IPCC는 현재 정책입안자를 위한 특별보고서 요약본을 각국 정부에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고 29일까지 논평 제출을 요구</p> <p>- 로이터통신은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인간에 의한 온도 상승은 2040년께 1.5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이 보고서 최종안이 앞서 지난 1월 나온 초안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p>	김현민

		<p>만, 광범위한 논문과 전문가들로부터의 25,000여 건의 의견이 덧붙여져 더욱 확고하게 됐다고 설명 (6/19, 에너지경제)</p>	
		<p>○ IRENA,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최근 발표한 'Renewable Energy and Jobs - Annual Review 2018'에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대규모 수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힘 (6/21, 에너지경제)</li> </ul>	김현민

### 3. 기후기술 정책

구분		내용	과제 No. 및 담당자
국내	정책일반	<p>○ 파리협정 대비 30개국 환경전문가 한국서 온실가스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5일부터 한 달간 '2018년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li> <li>- 한국의 온실가스 정보관리 방법을 개발도상국에 알려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진행</li> <li>- 교육생들은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세네갈, 스리랑카 등 국가별로 각국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온실가스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6/24, 뉴스)</li> </ul>	김현민
		<p>○ 환경부 장관, 온실가스 국외 감축분 국내 감축으로 전환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8.6.19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의 관점도 있어서 계획한 국외 감축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계획을 내 녹색위에서 심의</li> </ul>	김현민

		<p>중”이라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환경부 관점은 국제사회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며, 국외감축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설명</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6/20, 한계례)</a></p>	
		<p>○ <b>횡성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 횡성군이 최근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관한 ‘2018년도 미래유망 민간 기상서비스 성장 기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li> <li>- 3년간 6억4000만 원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횡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확대 실시</li> <li>- 특히 기상정보를 활용한 소 생육상태, 축사환경, 질병 등에 대해 효율적인 통합 스마트 축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6/21, 이뉴스투데이)</a></p>	<p>김현민</p>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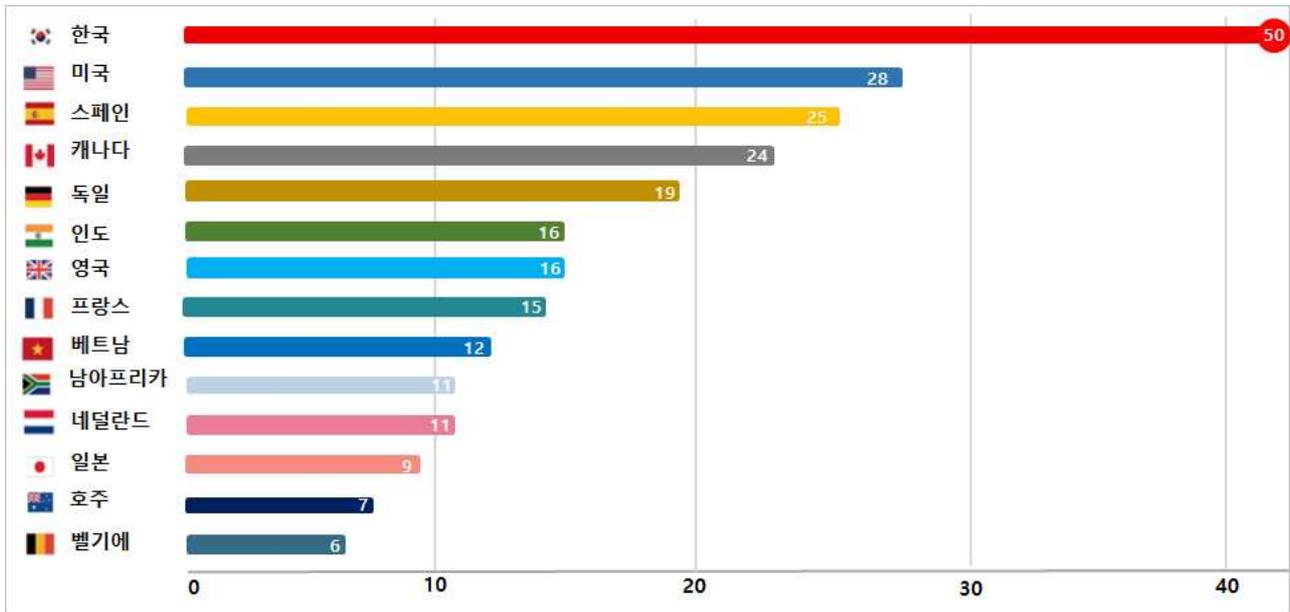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8.6.25.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78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8.6.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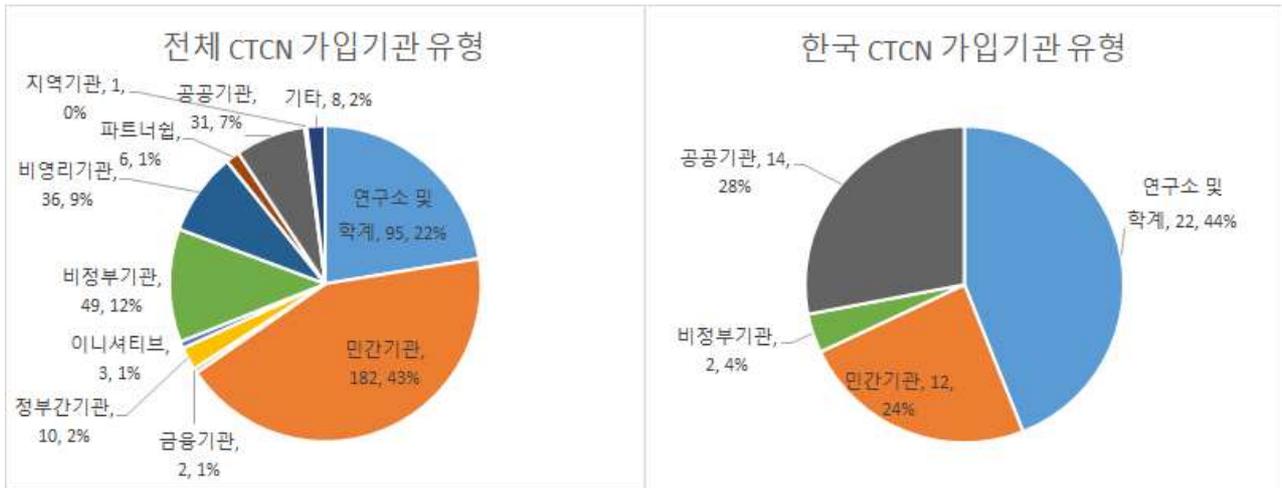
- 총 423 개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8.6.25. 현재)



<CTCN 전체 423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50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423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분이 전체 182건으로 43%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95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9건(12%), 36건(9%)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50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2건(44%)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4건(28%)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8.6.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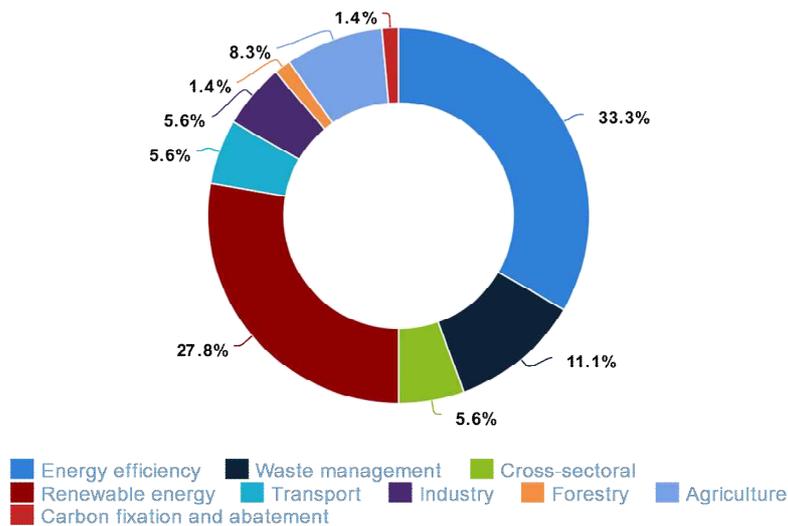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과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40	KPMG Korea	N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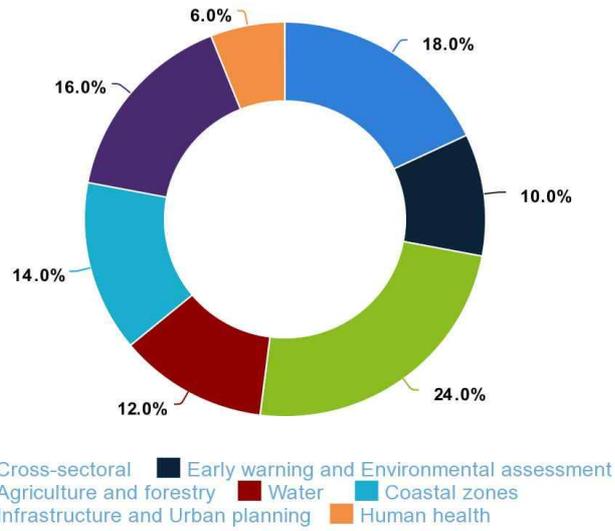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우(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47	평화엔지니어링	N0407
48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N0412
49	한국농어촌공사	N0431
50	한국광해관리공단	N0434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2018.6.25. 현재)

- 제출된 TA : 208개
- Active TA : 113개 (감축관련 TA-53.7%, 적응관련 TA-31.7%)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